



ML 올스타 선발 새 역사 던진다

류현진, 박찬호·김병현·추신수 이어 한국 4번째 올스타
1995년 日 노모 이후 21년 만에 아시아 투수가 메이저리그
선수 투표 2위로 합류... 10일 오전 8시 30분 올스타전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별들의 전쟁'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선발로 등판하는 영예를 누린다.
내셔널리그 올스타 사령탑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일(한국시간)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와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올스타전의 선발 투수로 등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신은 류현진을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로버츠 감독이 현재 계획대로 10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올스타 투수를 운영하면 류현진은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하는 최초의 한국인이 된다.
아시아로 시야를 넓혀도 역대 두 번째다. 1995년 노모 히데오(당시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선발로 등판한 뒤, 무려 24년 만에 아시아 투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 하는 놀라운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진다.

2013년 빅리그에 입성한 류현진은 7시즌 만에 올스타에 뽑히고 선발 등판까지 약속받았다.
류현진에 앞서 2001년 박찬호(당시 다저스), 2002년 김병현(당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18년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꿈의 무대' 올스타전에 나섰다.
그러나 박찬호는 내셔널리그 두 번째 투수, 김병현은 내셔널리그 7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타자 추신수도 8회에 대타로 나섰다.
류현진은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와 인터뷰에서 "올스타전 선발로 등판하는 건, 엄청난 영광이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전반기를 보냈다. 행운도 따랐고, 내 기량도 조금은 도움이 됐다. 팀 동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올스타는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른다. 류현진은 1회 말,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류현진은 전반기에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

에 어울리는 엄청난 성적을 올렸다.
그는 1일 현재 16경기에 선발 등판해 9승 2패, 평균자책점 1.83으로 호투했다.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2위,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 1위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현재 야구계 최고의 선발 투수다. 이날 당 출루허용률은 0.90에 불과하고, 16차례 선발 등판하는 동안 볼넷은 단 7개만 내줬다"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류현진이 선수 투표에서는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에 밀려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령탑 로버츠 감독의 선택은 류현진이었다.
성적을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함께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오른 투수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놀랍다.
내셔널리그 올스타 투수 라인업을 보면 클레이턴 커쇼(다저스), 잭 그레이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셔저,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 등 사이영상 수상자가 즐비하다.
여기에 워커 블러(다저스), 마이크 소로카(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차세대 에이스도 내셔널리그 올스타 투수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019년 전반기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는 단연 류현진이었다. /연합뉴스

MLB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출전 선수



역대 MLB 올스타 출전 한국 선수



극과 극 '광주·전남'

'K리그2' 광주, 17경기 무패 1위 독주... 전남, 시즌 5승 8위

K리그 2에서 강등 처분을 보내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시즌 5승에 성공했다.
2위 부산아이파크의 패배로 광주FC의 1위 독주에는 불이 붙었다.
전남이 지난 3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천 FC와의 2019 K리그 2 21라운드 경기에서 김영욱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앞선 안양 원정경기에서 연승에 실패했던 전남은 전남 25분 선제골을 만들며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했다.
기술력이 패널티 박스 바깥쪽 왼쪽에서 길게 올려준 공을 잡은 김영욱이 두 명이 수비수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부른 골로 공을 밀어넣었다. 김영욱의 시즌 4호골.
결정력 부재로 고민했던 전남은 전반에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후반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남은 후반 승부를 뒤집으려는 부천의 거센 공격에도 1점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보태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전남의 올 시즌 전적은 5승 3무 9패(승점 18)가 됐다.
승리에도 전남의 순위는 그대로 8위에 그쳤지만, 7위 부천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 차로 추격을 했다.
한편 부산의 패배로 치열했던 K리그 2의 1위 싸움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17라운드 경기에서 1위 광주가 대전 원정에서 1-0 승리로 승점 3점을 보냈지만, 2위 부산 아이파크는 아산 무궁화에 2-4로 지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11승 6무(승점 39), 부산은 9승 5무 3패(승점 32)가 되면서 두 팀의 승점은 7점 차까지 벌어졌다.
한때 부산이 승점 1점 차까지 쫓아오면서 1위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지만, 위기를 넘은 광주가 17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하면서 1위 싸움에 우위를 점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 '되찾은 여제'

LPGA 아칸소 챔피언십서 시즌 2승... 세계 1위 복귀

박성현(26)이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서 1타 차 짜릿한 우승을 일궈냈다.
박성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를 컨트리클럽(파71·610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195타의 성적을 낸 박성현은 박인비(31)와 김효주(24)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 고지에 오른 박성현은 투어 통산 7승 달성과 함께 세계 랭킹 1위에도 복귀했다.
박성현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것은 올해 4월 초 고진영(24)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주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박성현은 2주 연속 '준우승-우승'으로 선전, 세계 랭

킹도 4위에서 1위까지 끌어올렸다.
3라운드 54홀 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2라운드까지 선두 경쟁이 치열했다.
박성현과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가 나란히 13언더파로 공동 선두였고, 박인비와 고진영, 김효주, 다니엘라(미국) 등 무려 7명이 2타 차 공동 3위에 몰리면서 우승 향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날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였던 시간다가 2타밖에 줄이지 못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고, 공동 선두까지 치고 올라온 '다크호스' 다니엘라 다르케아(에콰도르) 역시 14번 홀(파5) 보기로 휘청이면서 한국 선수들끼리의 선두 다툼으로 압축됐다.
박인비는 마지막 홀 약 204야드 거리에서 5번 우드로 시도한 두 번째 샷을 홀 약 7m 거리로 보내 이글 기회를 잡았으나 이글 퍼트가 왼쪽으로 살짝 비껴가 아쉬움을 남겼다. 김효주 역시 마지막 홀에서 타수를 즐겼다면 연장전 합류가 가능했지만 두 번째 샷이 벵커에 들어가 파에 그친 바람에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